기술이 존중되는 사회

The Proposal for the Reformation of Korean Society

李光炯 / KAIST 전산학과 교수
by Lee, Kwang - Hyung

나는 한때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했다. "나는 왜 하필 후진국에 태어났는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이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를 만들었는가 하는 궁금증을 간직하고 있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

몇년 전의 일이다. 나는 파리의 콩코드광장을 거닐고 있었다. 세느강 너머로 국회의사당과 에펠탑이 보이는 광장에는 사방으로 화려한 조각과 분수가 어우러져 웅장하고도 고풍스런 아름다움을 자아내고 있었다. 그 가운데서도 광장의 중앙에 우뚝 서 있는 '오벨리스크'가 눈길을 끌었다. 수십 미터나 되는 이 기념비석은 기원전에 꽃피운 나일강문화의 산물로서 비석의 사면에는 이집트의 상형문자가 새겨져 있었다.

이집트 비석이 여기에 와 서있는 사연이 궁금하던 차에 프랑스어로 쓰여진 비석의 좌대에 눈이 머물렀다. 좌대에는 이 비석에 관한 사연이 간단히 소개되어 있었다. 19세기 초에 이곳으로 옮겨다 세웠다고 쓰여 있었다. 그리고 그 이전 공사는 엔지니어 누구에 의하여 몇년 동안 이루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 대통령의 이름은 새겨져 있지 않았다.

이것을 보는 순간, 바로 이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래 간직하고 있던 의문점을 풀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상식대로 한다면 이 공사를 지시한 왕이나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져 있을 법하지 않은가. 그러나 이들은 공사를 지휘한 기술자의 이름을 새겨 이 기념물과 함께 영광스럽게 기리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바로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에펠이 세운 에펠탑

서양 사람들은 모든 기념물에 공사 책임자인 엔지니어의 이름을 새기고 있다고 한다. '에펠'이라는 기술자가 설계하여 세운 기념탑을 '에펠탑'이라고 부르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와 같이 기술자를 우대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이 기술자가 되기를 희망했고, 따라서 기술이 발달하고 나라가 부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를 보자. 국보 1호인 남대문의 설계자는 누구인가, 경복궁의 설계자 또는 공사를 지휘한 도목수는 누구인가, 조선시대의 기념물에서 그와 관련된 기술자를 기억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사농공상의 기술 천대사상 속에서 기술자의 이름이 명예롭게 기억될 수 없었을 것이다.

심지어는 "나는 쟁이이지만 자식에게는 이 기술을 주지 않겠다"고 기술을 천시하던 사회에서 우수한 인력이 기술자가 될리도 없고, 따라서 기술이 발달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결국 이 기술 천시 사상이 우리를 후진국으로 만들고 말았으리라는 생각이다.

남대문의 설계자는 누구인가

그러면 서양에서는 왜 기술과 기술자를 숭상했는가.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였다. 종교혁명 후 서양에서는 실용주의와 함께

“서울역의 새 역사를 가보자. 철도청장의 이름만이 멋있는 동판에 새겨져 있지 실제로 그 건물을 책임질 사람들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다. 과학 교육의 요람이라 할 수 있는 국립중앙 과학관에 가 보아도 공사 기간 중에 재임한 관장들의 이름만 대여섯명씩 비석에 새겨져 있다.
이러한 사회풍조가 계속되는 한 앞으로도 우리나라에는 아파트가 무너져내리는 소리와 다리가 강물에 빠지는 소리가 그치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 이유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다. 설계자와 시공자 그리고 감독관의 이름으로 새기어 자자손손 길이 보전한다는 것이 명예와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부여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대가일 뿐이다.”

부의 창출을 위한 경제활동이 정당화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은 농업과 상업 외에 부를 창조하는 새로운 수단으로 각광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농업 이외의 경제활동이 정착되지 못하였고, 혹시라도 임의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면 이상한 사람으로 바라보던 것이 조선시대의 사회상황이었다. 심지어 “기묘한 병기를 만들어 역적모의를 하려 한다”고까지 할 정도였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같은 동양에 있으면서도 일본은 사정이 달랐던 것 같다. 얼마전에 철거한 창경궁의 장서각에서 나온 상량문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상량문에는 공사를 맡았던 목수 3명, 공사 발주자, 설계사, 제도사 그리고 감독관들의 이름만이 새겨져 있었다. 여기에 있을법한 왕이나 총독의 이름은 없었다. 일본사람들은 1백년전부터도 기술을 숭상하고 기술자를 우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일본은 왜 이러한 차이를 보였는가. 그들은 통일전까지 봉건영주들이 사무라이들의 무력에 의지해 세력을 확장하고 유지하는 사회였다. 이 사무라이가 싸움을 잘 하기 위해서는 칼이 좋아야 했다. 따라서 당연히 좋은 칼을 만드는 기술자, 즉 좋은 쇠를 만드는 기술자가 우대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기술 우대 사회인 일본은 19세기 중엽에 서양문물을 신속하게 흡수하여 부국강병의 길로 들어섰다.

결국 우리나라가 일본에 강점되었던 것도 그 원인을 기술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사실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한때 가졌던 “나는 왜 후진국에 태어 났는가”하는 질문도 결국 “나는 왜 기술을 천시하는 나라에서 태어났는가”하는 질문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부국 강병의 길

그러면 기술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오늘날은 어떠한가. 서울역의 새 역사를 가보자. 철도청장의 이름만이 멋있는 동판에 새겨져 있지 실제로 그 건물을 책임질 사람들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다. 과학 교육의 요람이라 할 수 있는 국립중앙 과학관에 가 보아도 공사 기간 중에 재임한 관장들의 이름만 대여섯명씩 비석에 새겨져 있다.

이러한 사회풍조가 계속되는 한 앞으로도 우리나라에는 아파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와 다리가 강물에 빠지는 소리가 그치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 이유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다. 설계자와 시공자 그리고 감독관의 이름을 새기어 자자손손 길이 보전한다는 것이 명예와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부여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대가일 뿐이다.